

세상이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Week #24 사도행전Acts 22:1-16
잘못된 정체성
“Mistaken Identity”

사도행전Acts 21:38

38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인이 아니오?”

38 Are you not the Egyptian, then, who recently stirred up a revolt and led the four thousand men of the Assassins out into the wilderness?”

사도행전Acts 22:1-3

1“여러 어른들과 형제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3“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 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로 우리 조상이 전해 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Brothers and fathers, hear the defense that I now make before you.” 2 And when they heard that he was addressing them in the Hebrew language, they became even more quiet. And he said: 3 “I am a Jew, born in Tarsus in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 according to the strict manner of the law of our fathers, being zealous for God as all of you are this day.

사도행전Acts 22:4-5

4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5이 일은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곳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I persecuted this Way to the death, binding and delivering to prison both men and women, 5 as the high priest and the whole council of elders can bear me witness. From them I received letters to the brothers, and I journeyed toward Damascus to take those also who were there and bring them in bonds to Jerusalem to be punished.

사도행전Acts 22:6-11

6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지 않겠습니까! 7그래서 나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8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9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0‘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그러나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6 “As I was on my way and drew near to Damascus, about noon a great light from heaven suddenly shone around me. 7 And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m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8 And I answer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9 Now those who were with me saw the light but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10 And I said, ‘What shall I do, Lord?’ And the Lord said to me, ‘Rise, and go into Damascus, and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is appointed for you to do.’ 11 And since I could not see because of the brightness of that light, I was led by the hand by those who were with me, and came into Damascus.

사도행전Acts 22:12-13

12이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 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13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12 “And one Ananias, 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 well spoken of by all the Jews who lived there, 13 came to me, and standing by me said to me,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hour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사도행전Acts 22:14-16

14그러고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며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15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이제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 버리십시오.’

14 And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s appointed you to know his will,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a voice from his mouth; 15 for you will be a witness for him to everyon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16 And now why do you wait? 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his name.’ ”